

**Title: 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study 7****The life and ministry of John: The death of John and his legacy**

Scripture: Luke 1:39-45, Matthew 3:13-15

Date preached: January 2nd 2022

**Scripture: Matthew 14:1-12**

**1** At that time Herod the tetrarch heard the report about Jesus **2** and said to his servants, “This is John the Baptist; he is risen from the dead, and therefore these powers are at work in him.” **3** For Herod had laid hold of John and bound him, and put *him* in prison for the sake of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4** Because John had said to him,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her.” **5** And although he wanted to put him to death, he feared the multitude, because they counted him as a prophet.

**6** But when Herod’s birthday was celebrated, the daughter of Herodias danced before them and pleased Herod. **7** Therefore he promised with an oath to give her whatever she might ask.

**8** So she, having been prompted by her mother, said, “Give me John the Baptist’s head here on a platter.”

**9** And the king was sorry; nevertheless, because of the oaths and because of those who sat with him, he commanded *it* to be given to *her*. **10** So he sent and had John beheaded in prison. **11** And his head was brought on a platter and given to the girl, and she brought *it* to her mother. **12** Then his disciples came and took away the body and buried it, and went and told Jesus.

**1** 그때 그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왕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2**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세례 요한이 분명하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3** 헤롯이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가둔 일이 있었다. **4**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5**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6**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다. **7** 그러자 헤롯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녀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8** 그래서 그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9** 왕은 몹시 괴로웠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하고 **10** 사람을 보내 간혀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11** 그리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 일을 알렸다.

**Review**

Last time we spoke about John's interactions with Jesus. Their first meeting took place whilst they were still in their mother's wombs. John was conceived six months before Jesus. As John's mother Elizabeth is going about her daily life in her Judean hill town she is visited by Mary. Mary has recently been told by the angel that she too is carrying a child. As Mary enters the house and calls out for Elizabeth the infant John hears Mary's voice, and we are told leaps for joy in his mother's womb. Although this is amazing it should not surprise us. The angel Gabriel had told Zacharias that John woul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ven in his mother's womb. It is of course also a foreshadowing of John's future ministry. In leaping he alerts his mother Elizabeth to Mary and the

precious child she carries. Later John will again announce the arrival of the Messiah and point people to Him. For their second documented meeting we jump ahead thirty years to the banks of the Jordan river.

John has been called out of the wilderness to begin his prophetic ministry. He is calling people to repent and be baptised. One day Jesus arrives after travelling down from Galilee. Jesus wants John to baptise him. We said last week that John is made aware of Jesus' sinless condition. Therefore as a man without sin Jesus does not require to repent and undergo John's baptism of repentance. Therefore John tells Him it is unnecessary for Him, and being perfect He should actually baptise John. Jesus understands John's reluctance but explains that the baptism must be performed in order to fulfil all righteousness. As we said last time righteousness here means living in complete harmony with God's will. It was right therefore that Jesus submit to John's baptism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ly it demonstrated that He was consecrated to God and that God officially approved Him. Secondly it served as the beginning point of His ministry. The baptism was His formal introduction to Israel. Thirdly and most significantly from a human standpoint it demonstrated that Jesus Christ identifies Himself as our sin substitute. Jesus' baptism shows His willingness to take on humanity and to be the perfect atonement for all sin and death. Fourthly it serves as an example for His followers to emulate. Baptism signals for believers the beginning of a new phase of life. When we emerge from the waters of baptism we are reborn into new life in Christ.

Following Christ's baptism John's ministry and influence would decline and people's attention, quite rightly would be diverted to Jesus. This was not an issue for John. He was never jealous or unhappy that his fame or prestige was diminishing. He accepted his place and role as heralding the Messiah. This was because he recognised that he and Jesus shared a common outlook and concern. Today we will conclude our brief study of John the baptist.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요한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그들이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습니다. 그녀가 유대 산간 마을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방문합니다. 마리아는 최근에 천사로부터 자신도 아기를 안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부르자 아기 요한이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를 놀라게해서는 안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요한이 모태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한 요한의 미래 사역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는 뛰어오르면서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와 그녀가 안고 있는 소중한 아이를 알립니다. 나중에 요한은 다시 메시아의 도착을 알리고 사람들을 그분께 가리킬 것입니다. 두 번째 문서화된 회의를 위해 우리는 30년 전 요르단 강 유역으로 이동합니다. 요한은 그의 예언적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내려오신 후 오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요한이 예수님의 죄 없는 상태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완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꺼리는 것을 이해하시지만 모든 의를 이루려면 아래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요한의 세례에 복종하신 것은 옳았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성별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침례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공식적인 소개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의 죄 대속물로 밝히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인류를 기꺼이 취하고 모든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원하시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그것은 그분의 추종자들이 본받을 수 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세례는 신자들에게 삶의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에 이어 요한의 사역과 영향력은 쇠퇴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이나 명성이 쇠퇴하는 것을 질투하거나 불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예수님이 공통된 견해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간략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 **Introduction**

We bring our study of John the baptist to a close today as we consider his tragic and gruesome death. As I was preparing this I came across this description of the star LBV 1806-20. It is located 45,000 light-years away from Earth on the far side of the Milky Way. Scientists claim it is the biggest and brightest star yet discovered. What's perhaps most interesting is the relatively short life span of this massive kind of star. This is what the article said.

*The most massive and brightest star known is 5 million to 40 million times more luminous than Earth's own star, the sun, and about 150 times more massive, but this stellar giant is destined to live a short life and then to erupt in a supernova explosion.*

As I read that statement I thought about the short, but intense life of John the baptist. John's life on earth was short. The bible does not give us his exact age at death but most scholars believe he was in his early 30's when he was killed. That also means his actual time of ministry was also very short. Perhaps he only preached and baptised for a year or two. And yet what an impact he made. Hundreds perhaps even thousands came to hear his words and had their lives transformed. He is a prominent figure in all four gospels. His disciples took his teachings and spread across the world. Remember Apollos who we met in the book of Acts and the 12 men who were John's disciples that Paul met in Ephesus (Acts 19). All had been greatly impacted and shaped by the teachings and message of John.

Let us then consider how John's life came to a dramatic end.

우리는 세례 요한의 비극적이고 참혹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별 LBV 1806-20에 대한 설명을 보았습니다. 지구에서 45,000 광년 떨어진 은하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크고 가장 밝은 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거대한 종류의 별의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입니다. 이것은 기사가 말한 것입니다. 알려진 가장 무겁고 가장 밝은 별은 지구 자체의 별인 태양보다 500만~4000만 배 더 밝으며 약 150배 더 무겁지만 이 별은 짧은 생애를 살다가 초신성 폭발로 분출할 운명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침례 요한의 짧지만 강렬한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요한의 지상 생애는 짧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정확한 사망 나이를 알려주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가 살해당했을 때 3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의 실제 사역 시간도 매우 짧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는 1~2년 동안만 설교하고 침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

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십만 명에서 수천 명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네 복음서 모두에서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난 아볼로와 에베소에서 만난 요한의 제자 12 명을 기억하십시오(행 19 장). 모든 것이 요한의 가르침과 메시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생애가 어떻게 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1 At that time Herod the tetrarch heard the report about Jesus**

Herod the tetrarch is also known as Herod Antipas. He is known as the tetrarch because he ruled a fourth part of a region. Following the death of his father Herod the Great his domain had been divided into four parts. Antipas ruled over Galilee and Perea from 4 BC to 39 AD. He was usually based in Tiberias where he had built his capital on the shores of the Sea of Galilee. However the events that we read about here took place in the fortresses of Machaerus located just east of the Dead Sea in modern day Jordan.

It was here in this mountain-top fortress that John had been imprisoned and later murdered. Although it was a formidable military outpost Herod had also extensively renovated it to make it a luxurious palace. This made it the perfect setting for many lavish parties such as the birthday party we will read about later.

All rulers like to be informed of popular movements or trends in society. This was particularly true in Palestine which had a reputation for uprisings and rebellions. It is not surprising then that news it had reached Herod regarding Jesus and his ministry. Since being baptised by John Jesus had been preaching, teaching and performing miracles. Here was a man just like John before who had garnered a large following and many admirers. He was then someone that had come to the attention of the authorities. Let us read on and see what Herod thought.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합니다. 그는 지역의 4 분의 1 을 통치했기 때문에 분봉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영토는 네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안티파스는 BC 4 년부터 AD 39 년까지 갈릴리와 페레아를 다스렸다. 그는 보통 갈릴리 바다 기슭에 수도를 세웠던 티베리아스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읽은 사건은 현대 요르단의 사해 바로 동쪽에 위치한 마케루스 요새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투옥되었다가 나중에 살해된 곳은 바로 이 산꼭대기 요새였습니다. 헤롯왕이 대대적인 개축을 하여 호화로운 궁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읽을 생일 파티와 같은 많은 호화로운 파티를 위한 완벽한 설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통치자는 대중 운동이나 사회의 경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반란과 반란으로 유명한 팔레스타인에서 특히 그러했습니다. 그때 헤롯에게 예수와 그의 봉사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추종자와 많은 찬사를 받은 이전의 John 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당국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헤롯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2 and said to his servants, "This is John the Baptist; he is risen from the dead, and therefore these powers are at work in him."**

Herod perhaps swayed by public opinion believes that Jesus is actually John the baptist who has risen from the dead. Some people it seems had looked for a source for Jesus' power and concluded it

came from the risen John. The thinking was that either Jesus was literally John risen from the dead, or that John's spirit was inhabiting and empowering him. To us today this seems like a very strange and unreasonable conclusion to reach. However we should not forget that this was a superstitious age. Many people in the Greco-Roman world believed that certain special human beings were conduits for divine power. Basically that the gods chose people through whom to work. Even within Jewish culture there existed a tradition that said a righteous and holy man who died a martyr's death could rise again from the dead. So Herod believes that Jesus righteousness and holiness has come directly from the risen John. Let us read on as Matthew explains Herod's role in John's death.

아마도 여론에 휘둘린 헤롯은 예수가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을 찾았고 그것이 부활한 요한에게서 온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생각은 예수가 문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요한이거나 요한의 영이 그에게 거주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도달할 수 있는 매우 이상하고 불합리한 결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미신적인 시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인간이 신성한 힘의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들은 일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유대 문화에도 순교자의 죽음을 맞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이 부활한 요한에게서 직접 왔다고 믿습니다. 마태가 요한의 죽음에서 헤롯의 역할을 설명한 대로 계속 읽어봅시다.

**3 For Herod had laid hold of John and bound him, and put *him* in prison for the sake of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4 Because John had said to him, "It is not lawful for you to have her."**

Matthew now takes us back in time to explain how John's death came about.

Herod had arrested John and put him in prison. What had John done to warrant being arrested and imprisoned? The synoptic gospel writers all point out that he was arrested for calling the king out for his sinful lifestyle in regard to Herodias. The historian Josephus said it was for political reasons. John posed a threat to political stability as he stirred up Messianic fervour in the region. I think that it was a combination of both reasons that prompted Herod to act. He certainly didn't like what John was saying and he also was leading a potentially dangerous revolutionary movement. The synoptic gospel writers all talk about Herodias. So let me tell you the story of Herod and Herodias.

Their sordid story is very similar to the sleazy tabloid stories we hear today involving sports or Hollywood movie stars.

Herodias was married to Philip the 1<sup>st</sup> the half brother of Herod Antipas. Philip also happened to be her uncle! It was with him that she had a daughter Salome who will feature later on. Herodias was also Antipas' niece. In case you are not keeping up she marries two of her uncles. Antipas himself was at the time married to Phasaelis the daughter of the Nabataean King Aretas 4th.

On a trip to Rome Herod Antipas stops to visit Philip. It was during this visit that he first meets Herodias, and they become infatuated with each other. Soon a budding romance began. A marriage to Herod was highly desirable to Herodias. She was an ambitious social climber. There was much for her to gain from marrying Herod and leaving behind Philip who was quiet, and politically insignificant. The problem of course that they were both married to other people. So in order to be together they both had to undertake illegitimate divorces. John rightly and repeatedly called them out for their sin and told them in God's eyes what they were doing was unlawful. Their marriage

was both incestuous and adulterous.

As you can imagine neither Herod nor Herodias liked to be publicly criticized by John for their sinful behaviour. Every time he told them the truth it pricked their consciences and made them uncomfortable. Even today rich and powerful people are quick to silence their critics. Both Herod and Herodias wanted nothing more than to shut John up permanently. This is what Mark tells us about Herodias;

**Therefore Herodias held it against him and wanted to kill him, but she could not; (Mark 6:19)**

Certainly Herod shared her sentiments but his relationship with John was a little more complicated. This is what Matthew tells us;

마태는 이제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존은 체포되어 투옥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공관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그가 헤로디아와 관련된 죄악된 생활 방식으로 왕을 부르짖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지역에서 메시아닉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적 안정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행동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확실히 존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혁명 운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모두 헤로디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추잡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스포츠나 할리우드 영화 배우와 관련된 천박한 타블로이드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형인 빌립 1 세와 결혼했습니다. 필립도 그녀의 삼촌이었다! 그녀에게는 나중에 등장할 딸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했다. 당신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 그녀는 그녀의 삼촌 중 두 명과 결혼합니다. 안티파스 자신은 당시 나바테아 왕 아레타스 4 세의 딸 파사엘리스와 결혼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로 여행을 가다가 빌립을 방문하기 위해 들립니다. 이 방문 중에 그가 처음으로 헤로디아를 만나고 서로에게 반하게 됩니다. 곧 짝트는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롯과의 결혼은 헤로디아에게 매우 바람직했습니다. 그녀는 야심 찬 사회 동반자였습니다. 헤롯과 결혼하고 조용하고 정치적으로 보잘 것 없는 빌립을 남겨두고 그녀에게 얻을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문제는 둘 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하기 위해 둘 다 불법적인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요한은 올바르게 반복해서 그들의 죄를 부르짖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근친상간이었고 간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이 헤롯도 헤로디아도 그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 요한의 공개적인 비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때마다 그것은 그들의 양심을 찢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람들을 재빨리 침묵시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둘 다 요한을 영구적으로 가두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가가 헤로디아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로디아는 그를 대적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녀는 할 수 없었다. (마가복음 6:19) 확실히 헤롯은 그녀의 감정을 공유했지만 요한과의 관계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5 And although he wanted to put him to death, he feared the multitude, because they counted him as a prophet.**

John as we have seen was held in high regard, and respected by many people. He had developed a large and devoted following. They recognised that he had been chosen by God as a prophet and as

such should be free to deliver God's revelation. There was no legitimate reason for him to be in jail. As God's prophet he was recognised by all as being just and holy. Even the wicked Herod Antipas recognised him as such. As Mark tells us,

**For Herod feared John, knowing that he *was* a just and holy man, and he protected him. And when he heard him, he did many things, and heard him gladly. (Mark 6:20)**

So Herod finds himself in something of a dilemma. On one side he has an angry and manipulative wife who wants John killed. On the other he has his subjects who believe he is unjustly holding a prophet in jail. He recognises himself that John is just and is being unfairly imprisoned. He also knows that if he kills John it may trigger an uprising and the Romans will remove his power from him. What is Herod to do? As a weak and indecisive man his solution is to compromise. Keep John indefinitely imprisoned but don't kill him. However as we will see the imprisonment was to end in tragic and brutal circumstances.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헌신적인 추종자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자유롭게 전해야 함을 인식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고 거룩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사악한 헤롯 안티파스도 그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마크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일을 하고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다. (막 6:20) 그래서 헤롯은 딜레마에 빠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쪽에는 존을 죽이고 싶어하는 화나고 교활한 아내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부당하게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고 믿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는 존이 정당하고 부당하게 투옥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합니다. 그는 또한 그가 요한을 죽이면 그것이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인들이 그의 권력을 제거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서 그의 해결책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존을 무기한 감옥에 가두되 죽이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투옥은 비극적이고 잔인한 상황에서 끝나야 했습니다.

**6 But when Herod's birthday was celebrated, the daughter of Herodias danced before them and pleased Herod. 7 Therefore he promised with an oath to give her whatever she might ask.**

It was the occasion of Herod's birthday. The perfect opportunity for a prideful and egotistical man to show off and impress people. He decided to throw a lavish party to which he invited, **his nobles, the high officers, and the chief men of Galilee (Mark 6:21)**. We should imagine a sumptuous feast with lots of food and drinks being consumed. As part of the festivities Herodias' daughter Salome performed a dance. She would have been aged between 12-14 at this time. Today we would think of a her as a child but in the ancient world she was at an age in which young girls were married. It was we should note very irregular for a member of the royal household to dance in such a setting. Normally this kind of lewd, sensual dancing was performed by hired professional dancers. That it was a princess dancing here shows us that this was a plan concocted by Herodias.

The idea commonly held today is that the dance was a sensuous one and that it excited Herod's passions. The Herodians had a reputation for low morals and for dancing girls. I think the dance was designed to titillate and excite the men present which it clearly does. Herod is greatly pleased by the dance and makes a rash and foolish promise to Salome. The oath that he swears is to give her whatever she wishes up to half his kingdom (Mark 6:22). Apparently a dancing girl who pleased her audience was entitled to ask for a reward.

He makes this oath in public before his guests and is therefore honour bound to keep it. He would have lost considerable face if he had backed down or refused to honour his word before his dinner guests. This was just the moment the wicked Herodias had been waiting for. Salome leaves the room to consult with her mother before returning to put forth her request. Remember she could have asked for anything her heart desired. What did she desire?

그 날은 헤롯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람들을 과시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는 자신의 귀족들과 고관들과 갈릴리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자기가 초대 한 호화로운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막 6:21). 우리는 많은 음식과 음료가 소비되는 호화로운 잔치를 상상해야 합니다. 이 축제의 일환으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12-14 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고대 세계에서 그녀는 어린 소녀들이 결혼하는 나이였습니다. 왕실의 일원이 그러한 환경에서 춤을 추는 것은 매우 불규칙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란하고 관능적인 춤은 고용된 전문 무용수들이 수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춤추는 공주님이었다는 것은 이것이 헤로디아가 꾸민 계획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하는 생각은 그 춤이 감각적인 춤이었고 헤롯의 열정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헤롯당은 낮은 도덕률과 춤추는 소녀들로 유명했습니다. 나는 춤이 분명히 하는 것처럼 현재의 남성들을 자극하고 흥분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헤롯은 춤에 크게 기뻐하며 살로메에게 성급하고 어리석은 약속을 합니다. 그가 맹세한 것은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녀에게 그의 왕국의 절반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막 6:22). 분명히 그녀의 청중을 기쁘게 한 춤추는 소녀는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맹세를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므로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후퇴하거나 저녁 손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상당한 얼굴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악한 헤로디아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살로메는 어머니와 상의하기 위해 방을 나와 어머니의 요청을 제출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녀는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8 So she, having been prompted by her mother, said, “Give me John the Baptist’s head here on a platter.”**

The prompt response of Herodias demonstrates that this had been in her mind for some time. She had been plotting and scheming for a way to have John killed. She had cunningly devised a way to trick her husband into making a rash and impulsive decision. She clearly knew that her lustful husband could be easily won over. We should also note the immediacy of her request. Mark tells us,

**25 Immediately she came in with haste to the king and asked, saying, “I want you to give me at once the head of John the Baptist on a platter.” (Mark 6:25)**

This tells us that Herodias does not want Herod to have time to think about this act or to wonder about the morality of it. It is also possible that he was drunk at this stage of the party, and she didn't want him to sober up and think rationally about things. No, it must be done immediately whilst the guests are present to hold Herod to account.

헤로디아의 즉각적인 응답은 이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 동안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존을 죽일 방법을 모의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속여서 성급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교활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녀는 음탕한 남편이 쉽게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녀의 요청이 즉각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크는 우리에게 말한다. 25 곧 급히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헤로디아가 헤롯이 이 행위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 도덕성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기를 원했음을 알려줍니다.



니다. 파티의 이 단계에서 그가 술에 취해 있었고 그녀는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일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손님이 있는 동안 즉시 행하여 헤롯에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

**9 And the king was sorry; nevertheless, because of the oaths and because of those who sat with him, he commanded *it* to be given to *her*. 10 So he sent and had John beheaded in prison.**

No doubt Herod deeply regretted his foolish promise. As a cruel tyrant it is doubtful that he was sorry about murdering an innocent man. Most likely he was sorry about the trouble killing John might stir up. He was a prideful and weak man who didn't want to stand up to his wife and was fearful of losing face in front of his guests. Therefore he gave the wicked order for John to be beheaded. John, the last of the Old Testament prophets suffered a martyr's death as had countless other prophets before him.

헤롯은 자신의 어리석은 약속을 깊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잔인한 폭군으로서 그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도 그는 John 을 죽이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나약한 남자로 아내에게 맞서고 싶지 않고 손님 앞에서 체면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므로 그는 요한에게 참수하라는 악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은 그 이전의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순교자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11 And his head was brought on a platter and given to the girl, and she brought *it* to her mother. 12 Then his disciples came and took away the body and buried it, and went and told Jesus.**

This tragic story ends in a gruesome and dehumanising way as John's head is brought in on a plate and given to Salome. She takes it to Herodias who now doubt gloats and rejoices that the godly and righteous John is no longer able to call her out for her immorality.

John's followers are informed about what has happened, and they come and take John's body away to be decently buried. After they had done this they went to tell Jesus what had happened.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존의 머리가 접시에 담겨 살로메에게 주어지면서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끝납니다. 그녀는 의심을 알고 있는 헤로디아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경건하고 의로운 요한이 더 이상 그녀의 부도덕에 대해 그녀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요한의 추종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고, 그들은 와서 요한의 시신을 제대로 장사지내기 위해 가지고 갔다. 그들은 이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 가서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 **The legacy of John**

John's brief life came to a sudden and tragic end. When we read the gospel accounts we should rightly be shocked and heartbroken. So great and godly a man taken away in the prime of his life and ministry. His period of ministry was short but intense. He burnt like a white-hot flame which God had only intended to burn for a short time. It burnt for only as long as was necessary, just long enough to illuminate the light of the world whose flame can never be extinguished. John's call was to herald the Messiah and point people to him. It remains the greatest mission any man could ever be asked to perform. John did not err, stumble or fail. He perfectly fulfilled what God had called him to do.

We remember John for his unwavering commitment, passion, courage and boldness. He did not have the full and detailed picture of salvation that is available to us, and yet he knew and taught the

essential things. He told people that God's Kingdom was at hand. Because the time was short they must repent immediately and turn to God. They were to demonstrate their commitment to God by publicly be baptised. Today we eagerly await the return of our saviour. His return is imminent, it could be at any time. Therefore we must, just like John point people to Christ. As sinners, we are estranged from a perfect and holy God. We cannot save ourselves and that is why we need a saviour. Someone who can bridge the divide between fallen human beings and God. That saviour is the Lord Jesus Christ. It is only by confessing and repenting of our sins and then putting our faith in Him that we can be saved.

There are many other things I could have said about John. In such a short series I could never cover every detail of his fascinating life and character. Let me now draw things to a close by highlighting five things we can learn from John.

존의 짧은 인생은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복음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당연히 충격을 받고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경건한 사람은 그의 생애와 사역의 전성기에 빼앗겼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태우려고 하신 새하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만큼만,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진 세상의 빛을 비출 만큼만 타올랐다. 요한의 부르심은 메시아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그에게로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임무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완벽하게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확고한 헌신, 열정, 용기 및 대담함으로 존을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필수적인 것을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헌신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하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복귀가 임박했으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지적인 것처럼 해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타락한 인간과 신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 그 맞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다음 그분께 믿음을 두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짧은 시리즈에서 나는 그의 매혹적인 삶과 성격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결코 다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다섯 가지를 강조하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 **1 Be courageous**

John shows us an example of true courage. When he was challenged by the authorities and powers of his time he did not back down or moderate his language.

He showed great courage in calling out sin and hypocrisy where he saw it. It is never easy to point out people's sins. But John knew that speaking truth even when difficult is as an act of love. It's loving because to leave people seemingly secure in their sins is to effectively condemn them to death. By contrast how lacking in courage are most Christians today. Too timid to stand up to the evil around them. Too fearful of the consequences of rocking the boat. Too worried about causing offence to call out sin. Let us look and learn from the example of John.

**2 Be humble**

John modelled for us true humility. It would have been easy for him to have become prideful especially when crowds gathered around him and wanted to hear what he had to say. Likewise, it is easy for us in many ways to allow pride to corrupt and influence us. Lets us learn from John's example.

**3 Beware of the corruption of the world**

John shows us what our response should be to the corruption of the world. Was John too extreme? Most Christians today would say he probably was. Imagine giving up all the pleasures of the world to go and live in the wilderness. Most Christians today want to straddle the fence. To be precariously balanced with one foot in the world and its fleshly pleasures and one foot on holy ground. How effective is such an approach? How godly and righteous are most professing Christians? It does not take much of the world to influence and corrupt. John knew this and this was why he took an extreme action. I think we all need to step back and really assess how corrupted we are by the world. Let us learn from John's example.

**4 Remain steadfast**

John shows us an example of what it means to be steadfast. John was sent with a particular mission and purpose. No matter what was going on around him he remained focused and committed to that. How often are we distracted by the world and things going on around us. Let me remind you of your mission. We are called to be faithful and committed disciples of Christ. To lead and guide our families well. To live good God honouring lives and to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Let us remain steadfast and focused on our mission.

**5 Keep your eyes on Christ**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we learn from John where our focus should be. Our eyes our thoughts and our affections must always be directed towards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Nothing is ever to distract us from Him. Let us then learn from John and keep our eyes firmly fixed on Christ.

**1 용기를 내라**

요한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가 당대의 권위와 권력에 의해 도전을 받았을 때 그는 그의 언어를 철회하거나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와 위선을 본 곳에서 큰 용기를 보였습니다.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려울 때에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죄에서 안전해 보이도록 놔두는 것은 사실상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입니다. 대조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용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주변의 악에 맞서기에는 너무 겁이 많습니다. 배를 흔드는 결과에 대해 너무 두려워합니다. 죄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욕을 주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합니다. 요한의 예를 보고 배우도록 합시다.

**2 겸손하라**

요한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특히 군중이 그의 주위에 모여서 그의 말을 듣고자 할 때 그는 교만해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만이 우리를 부패시키고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여러 면에서 쉽습니다. 요한의 예에서 배우도록 합시다.

**3 세상의 부패를 조심하라**

요한은 세상의 부패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존이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그가 그랬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살기 위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울타리를 넘고 싶어합니다. 한 발은 세상과 육신의 쾌락에, 한 발은 거룩한 땅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는 것. 그러한 접근 방식은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영향을 미치고 부패시키는 데는 세상의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John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그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이유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한발 물러서서 우리가 세상에 의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진정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예에서 배우도록 합시다.

#### 4 굳건함을 유지하라

요한은 확고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파견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까? 당신의 사명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충실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잘 이끌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선한 삶을 사는 것. 확고부동하게 우리의 사명에 집중합시다.

#### 5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요한에게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생각과 애정은 항상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요한에게서 배우고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굳게 고정시키십시오.